

## IMF시대에 맞게 된 ‘건축문화의 해’

### Celebrating “the Year of Architectural Cultures” in the Period of IMF-Aid

임창복 / 성균관대 건축과 교수

by Yim Chang-Bok

6월 대란설이다, 8월 폭동설이다 해서 바야흐로 경제위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느낌이다. IMF 자금지원 이래 고금리, 고실업, 고환율에다 주식폭락 등으로 우리의 경제지표는 온통 우울한 것 뿐이다. 그래서인지 지방선거가 코앞에 닥쳐왔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오히려 선거 이후 터져 나올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심을 집중시키며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이 요즘의 사회 형국이다.

건축설계사무소의 업무도 건설경제활동의 한 부분임을 감안할 때 건축사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음은 우리가 다 아는 바이다. 다니던 사무소를 그만 둔 수많은 젊은 예비건축사, 오랫동안 경영하던 사무소를 축소 조정할 중견 건축사 그리고 이젠 나이가 좀 들었다고 내몰린 경험 많은 노장 건축사들은 이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암울하기만 한 요즘 건축계에 한가지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문화관광부가 내년을 ‘건축문화의 해’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 땅의 건축인이라면 감회가 없을 수 없다. IMF시대에 그것도 20세기를 마감하는 1999년을 건축문화의 해로 맞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특히 20세기의 마지막 해 1999년에 건축문화의 해를 갖는다는 것은 ‘지난 백년’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라는 우리 사회의 주문도 함께 있는 듯하다. 따라서 그 동안 누적된 건축계의 문제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건축계 내부적인 모순도 극복하고, 사회에도 적극적으로 건축분야의 정체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건축문화의 해를 자기 모순의 극복과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특히 새로운 다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건축사 모두가 ‘건축문화의 대중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건축이란 인간의 각종 활동기능의 수용을 전제로 한 조형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일반인들이 건축의 의미나 건축분야의 전문성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다. 그 원인으로 건축사들은 사회가 선진국에서처럼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다고 푸념하지만, 건축과 관련된 영역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사회에 알리는 데 게으르거나,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연유된 측면도 많다고 본다.

내년에 맞게 되는 건축문화의 해에는 건축사 자신들의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해서도 스스로가 건축의 문화적 측면을 이해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건축이 이윤극대화를 위한 비즈니스 건축사들만의 영역으로 존재할 때 사회로부터의 존경을 기대한다면 이것은 좀 지나친 욕심이 아닐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건축사들이 그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란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몇 년전 파리의 한 집합주택을 방문했을 때 보렐이라는 젊은 건축가가 자기 작품을 찾아주는 방문객들에게 팜플렛을 나눠주며 안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나중에 대화를 하며 알게 되었지만 파리시에서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기에 자기가 나와서 일반시민들과 만나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 젊은 건축가의 노력에 시민들은 애정어린 존경심을 마음 한 구석에 담게 되

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

건축문화를 보다 넓게 알리려면 자기 자신의 작품뿐만이 아니라 선조들의 유산인 문화재나 유명작가의 현대 건축물을 네트워크화해서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의 마련도 필요하다.

우리 나라에는 고건축뿐만 아니라 현대 건축물 중에도 우수한 것이 많이 현존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의미 있는 문화의 일부분으로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다. 지나간 얘기가 되었지만, 궁정동 안가는 박대통령이 서거한 마지막 장소라는 역사성이 있는 건물이었지만 분풀이의 대상으로 삼아 없애버렸고, 중앙청도 철거를 하더라도 일부는 지하화해서 극일의 상징장소로 만들 수 있었는데도 순간의 한풀이로 끝낸 것은 못내 아쉬운 대목들이 아닐 수 없다.

과거의 문화재나 현존하는 건물을 네트워크화할 때 너무 예술성에 치우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그 장소와 역사를 증언해 주는 일반 건물도 훌륭한 자원이 된다는 시각의 유지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각종 건축관련 워크숍의 개최나 유명 건축가의 작품 모델 만들기 등으로 일반인들이 친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매우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변인구를 보다 확대시키려면 건축사들이 나서서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자원하여 건축문화의 중요성을 소개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

예술적 재능이 많았던 루이스 칸도 그가 고등학교 시절 대학 진로를 앞두고 고민할 때, 그가 다니던 고등학교를 방문해 건축분야를 소개해 준 필라델피아 지역의 한 무명 건축가 덕분에 건축분야를 택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칸은 건축이 과학과 기술에 속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 특강을 듣고 난 후 건축분야가 갖는 문화예술적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필자도 집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10여년 전 일일교사 제도라는 게 있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건축강의를 해 본 경험이 있다. 주제로 무엇을 택할까 망설이다가 주거건축이 좋을 듯해서 '우리의 아파트단지'와 해외의 집합주거단지'를 비교해서 슬라이드로 보여 주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대단치 않은 내용으로 일일교사 시간을 '때우고' 돌아왔던 것으로 기억된다. 저녁에 집의 아이가 돌아왔을 때 그래도 은근히 일일교사 강의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좀 과장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집 아이 말로는 강의가 끝나자 몇몇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 우리 동네 아파트를 부수러 가자고 외치는 친구도 있었고, 우리는 왜 이렇게 엉터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속상해 하는 아이도 있었다고 전해 주었다. 어린아이들이지만 느끼는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건축의 중요성을 조금이나마 일깨워 주었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아마도 건축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건축가 스스로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참여하는 길만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본다.

건축이란 결국 건물에 부가가치를 더하는 것 아닐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교육 없이는 건축의 새로운 영역이 개척되기 어렵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건축의 해를 맞으며 건축사들이 도시의 공공 영역에 대한 관심도 새롭게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현재 일반인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건축의 영역은 단위건물의 '설계'와 '시공'으로 한정되어 있는 듯하다. 따라서 건축물을 설계하는 건축사가 단위 건물을 설계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나 도시의 공공영역이나 토목 시설물을 다룰 수 있는 디자이너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물론 건축사에게도 부족한 점은 있겠지만, 도시의 육교나 교량, 그리고 도로의 선형 디자인에는 관심만 가지면 좋은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유명한 교량들이 건축가와 교량구조 전문가들의 협작에 의해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건축사란 구조의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일 것이다.

건축의 해를 맞이하여 건축사의 관심영역을 단위 건축물에 국한시키려 하기보다는 도시 환경에 이르기까지 폭이 넓은 이해시키고 참여가 가능한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지방도시의 정체성 찾기'라든지 '건축가가 제시하는 도시 개선의 비전' 등은 건축사들이 참여해서 커다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도시 관련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이러한 현안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건축 3단체의 통합된 운영체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도 건축 3단체는 매월 한차례 함께 모여 건축계의 현안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동안 그런 대로 큰 잡음 없이 각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WTO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요구되는 건축사 인증제도, 건축교육에 대한 개선문제, 특히 최근 교육부의 학부제 도입을 건축과에도 적용하고 있는 현안 등에 직면하면서 3단체의 대처방안을 보면 다소 미흡한 점이 보인다. 각 단체의 고유 업무 영역에 대해서는 열심이지만, 국내외적 긴급상황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분야에서는 그리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다. 특별히 긴급하게 다루어야 할 상황인 경우 3단체가 분야별 통합운영체제를 가동시켜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이제 내년에 맞게 될 건축문화의 해가 어느 한 단체만의 잔치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동안 건축계가 안고 있는 자기 모순을 개선하고 새로운 한 세기를 다함께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